

- The Problem

대부분의 환자는 진료나 치료가 필요할 때 의사를 찾아가곤 하지만, 때로는 병원이 멀든지, 병원에 가기 힘든 환경이든지, 진료시간이 아니라서 (응급만 받는 야간이라든지, 휴일 등) 대기줄이 많아서 의사를 볼 수 없는 등 여러 상황이 있는 환자들이다.

현재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이 터지기만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서로 소통할 수도 있고, 검색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의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자신의 증상을 치면 어느 정도 자료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의사나 관련 직종의 사람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쓴 이야기의 전문성은 부족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신의 병이나 증상에 대해 스스로 오진을 내리고 잘못된 치료를 할 수도 있다.

의사의 입장에서, 대기순번을 짜고 연속적으로 환자를 받아서 진료하고 치료하는 것은 버겁다. 특히 의사의 수가 적은 병원일수록, 지역에 병원의 수가 없을수록 더욱 그렇다. 또한 치료가 끝나가는, 그야말로 진료만 필요하고 처방전만 주면 되는 환자도 존재하는데, 이 경우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을 일일이 찾아가기 귀찮거나 힘들기도 하고 의사의 입장에서 대기 인원에게 해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전문성도 갖추고 편리성도 갖춘 원격 의료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환자가 자신의 병명이나 증상, 치료 기간 등을 입력하면, 빅데이터에 의해 수집된 자료들과 진료 데이터 등을 통해, 그리고 의사들이 사전에 만들어놓은 병에 대한 정의나 몇몇 의사들을 통해 어떤 병인지, 치료방법 등을 알려주는 시스템으로, 이 외에도 화상 채팅이나 화상 전화로 비번인 의사들이나 온라인 원격 의료 시스템을 위해 고용된 의사들이 1대 1로 직접 진료를 봐줄 수도 있고, 처방전을 화면에 띄워서 해당 환자가 그 처방전을 다운받아서 약국에 보여주면 약을 받을 수 있게도 하는 시스템이다.

- Scenario

첫 화면에서, 환자는 몇 가지 질문에 답하게 된다. 환자는 과거에 진료 경험이 있는지(필수), 어떤 증상이 있는지(필수), 병명(안다면)이라든지, 어느 정도로 심한지, 해당 부위의 사진 등을 올리는 칸에 답을 하게 된다. 또한 응급한 경우에는 구석에 있는 '119' 버튼을 누르고 가장 가까운 병원과 통화를 할 수 있게 한다.

환자가 질문에 답을 다 하게 되면, 시스템은 해당 입력받은 데이터를 통해 먼저 어떤 병인지, 그리고 그 병에 대한 정보와 치료법 등을 알려주고 이후 의사와 1대1로 진료를 받아보겠냐는 창이 뜬다. 만약 감기와 같은 가벼운 것이거나 치료가 끝나가는 환자라면 전자에서 스스로 치료하거나 필요하다면 처방전을 요청하여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내고 약을 받으면 되고, 더 상세한 진료가 필요하거나 좀 더 큰 병이라면 1대1로 진료를 받은 후, 이후 병원에 들르거나 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된다. 1대1 진료의 경우 자신이 의사를 고르고, 해당 의사에게 전화나 영상 통화 등을 통해 진료를 받게 된다. 또한 진료가 끝나면 해당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그 의사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된다.

의사의 경우 자신의 분야와 자격증, 지역, 비번인 시간이나 날짜, 온라인 근무 희망일? 등을 사전에 등록하고, 환자로부터 진료 요청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요청이 오면 진료를 보면 된다.